

조선시대 여성 단령(團領)에 관한 연구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송 미 경

경기도 박물관보존과학실 연구원

Study of *Joesun* Dynasty *Danryoung* Worn by Woman

Mi-Kyung Song

Researcher, Kyonggi Provincial Museum
(2002. 11. 15 투고)

ABSTRACT

This study implicates that the *Danryoung*(Formal dress) has been worn by the lady in *Joesun* dynasty. So far 8 cases of *Danryoung* excavated has been supposed to be worn by woman. The differences between man and woman's *Danryoung* is at the '*Somae*(sleeve)' and '*Mu*(gusset)'. Through those excavated *Danryoungs*, '*Somae*' in Woman's *Danryoung* was straight and '*Mu*' attached in outer layer of dress with rectangular form. From the excavated dresses, *Ot-go-reum*(strings) coloured violet and wider than man's *Danryoung*. It was also found as detached. Woman's *Danryoung* was decorated with gold brocade and excavated with belt. Through the dress and accessories excavated, it was estimated in mid-16C to early 17C. With this respect, it was implicated that *Danryoung* has changed its style to *Wonsam* after late 17C.

Key Words : excavated dresses form graves(출토복식), ladies dress(여성예복),
Joesun dynasty(조선시대), *Wonsam*(원삼), *Danryoung*(단령)

I. 서론

1970년대 이후 국토개발에 따른 분묘의 이장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출토 복식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 이러한 출토복식 즉 실물자료를 문헌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조선시대 복식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 출토복식 가운데 여성이 착용했던 단령을 통하여, 임진왜란 전후시기의 조선 중기 여성 예복으로,

단령 착용에 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여성의 단령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원삼 형태와 연관하여 여성 단령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 단령의 출토 예는 안동대학교 소장의 장기 정씨(1565~1614)외에 8건이 있다. 이 가운데, 생물 년대가 정확한 것은 장기 정씨의 단령 1벌이며, 나머지는 함께 출토된 복식의 형태와 부장품 그리고 묘제(墓制)를 통한 물년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단령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를 잘 모르는 점이 제한점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여성 표의(表衣) 중 원삼 것이 아닌, 단령 깃을 가진 복식은 같은 시대 남성이 입었던 단령과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유물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실측하여 봉제법과 형태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것들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여성 단령의 명칭을 밝혀야 하겠으나, 임의로 본 연구에서는 단령이라 칭한다.

II. 중국과 조선의 문헌 및 초상화에 나타난 여성 단령

최근 조선시대 초중기 출토 복식 가운데 여성의 예복으로 단령이 출토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동시대인 중국과 조선의 문헌과 초상화에 나타난 여성 단령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명대(明代)의 단령 깃을 가진 여성 표의는 출토복식으로 보고된 것¹⁾과 황후와 명부(命婦)의 초상화에서 단령 착용 사례가 초상화에 있다. 명태조 황후상은 단령삼(團領衫)을 입고 있다고 하며, 연거시(燕居時) 편복(便服)²⁾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왕비의 초상화에 대삼 위에 하피와 배자를 착용한 것이 몇 점³⁾⁴⁾이 있으나, 하피와 배자를 착용했기 때문에 깃의 모습은 보이나, 무와 소매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그 외 명대 부부상⁵⁾에도 하피와 배자를 착용한 모습이 있다. 이 그림에서도 둥근 깃이며, 무의 모습은 남편의 것은



<그림 1> 明太祖皇后像



<그림 2> 明那圻 부부상



<그림 3> 明一品命婦



<그림 4> 七品孺人像

한 번 주름이 잡혀 있지만, 부인의 옷은 남편과는 형태가 다른 겹 주름으로 표현되어 주목할 만 하다.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초상화로는 명(明) 1품명부⁶⁾와 7품 유인(孺人)⁷⁾ 관복상⁸⁾이 있는데 단령에 흉배를 부착한 모습으로 단령대수삼(團領大袖衫)이라

고 설명되어 있다.

『대명회전』과 『明史』에는 홍무(洪武 1368~1398)와 영락(永樂 1403~1424) 년간의 여성 예복과 상복에 관한 기록이 있다. 황후의 상복(常服)으로 단삼과 · 대수의(大袖衣) · 대삼(大衫), 황비는 단삼과 대수의, 황태자비는 단삼 · 대수의 · 국의(鞠衣), 친왕비는 단령삼, 명부의 예복으로 원삼(圓衫) · 대수삼을 상복(常服)으로는 원령삼(圓領衫), 사서처(士庶婣)의 예복은 단삼을 입는다고 했다.⁹⁾ 『대명회전』에서 명부의 예복에서 원삼(圓衫)의 명칭은 있지만 치문(雉文) 등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치문이 수 놓여진 적의(翟衣)와 비슷한 옷으로 생각되고, 상복(常服)으로 착용한 원령삼(圓領衫)이 명부 초상화에 보이는 흉배 달린 단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나라에서 왕비 사여(賜與) 관복으로, 대삼(大衫)과 원령(圓領) 그리고 단삼(團衫)에 관한 기록이 있다.¹⁰⁾ 태종 · 문종 · 단종 · 세조 그리고 예종 대(代)에 5번의 사여 관복의 기록이 있는데, 대삼에는 하피와 배자 등의 부속품이 있지만, 원령과 단삼에는 부속품이 없다. 이를 명의 대명회전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대삼과 단삼이 그대로 사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형태도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 황후의 초상화에서 하피와 배자를 갖춘 단령은 대삼(大衫)이었을 것이며, 명부(命婦) 초상화에서 보이는 흉배가 부착된 단령은 단삼(團衫) 또는 원령(圓領)으로 불리어 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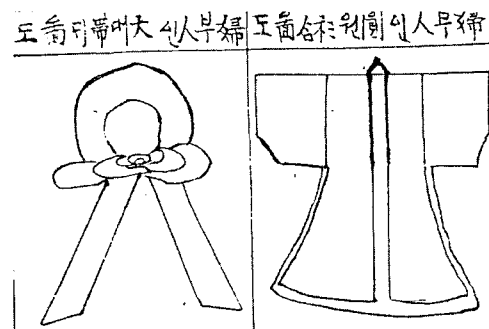
우리 나라 문헌에 나타난 여성의 단령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나, 원삼에 관한 기록은 나와 있다. 세종조 양성지의 『돌재집』에는 “근일에는 귀천의 구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제 마음대로 누른 빛 옷을 입으며, 양반의 부녀에 이르기까지 원삼(圓衫)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어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인 채 백주에 대도시를 다니면서 조금도 껴안지 않은 줄을 모릅니다.”¹¹⁾고 하여, 흉배를 붙인 여자 겉옷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4년 예조의 사치금제 절목 10조의 “원삼(圓衫) 단장의(單長衣)는 거행하지 말 것”¹²⁾과 연산군 일기 11년의 기록에 “이 때부터 사라능단의 값이 뛰어 올

랐으므로 조사(朝士)로서 가난하여 살 수 없는 자는 여자의 옷으로 단령을 만드니, 조하 · 조참 때이면 반 너머가 다 여자의 원삼(圓衫)이다.”¹³⁾고 하여 원삼과 남자 단령 형태가 비슷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복남은 『한국복식사연구』에서 “원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용어로는 團衫을 들 수 있다. 단삼이란 말은 조선초기에 명나라에서 가져온 왕비의 관복에 나타나며, 조선 중 · 후기의 가례도감의례에서 단삼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종2년, 문종 1년, 성종 8년 · 12년의 왕비 관복에도 단삼의 기록이 있다. 빈궁의 상복에 인조 5년의 기록이 있으며, 25년 뒤인 효종 5년의 기록에는 원삼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원삼과 단삼은 같은 옷으로 볼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유송옥의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에는 가례도감 의례에 나타난 원삼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소현세자(1627)부터 순종 순명후(1882)까지 9건의 기록이 있으나 색과 의차(衣次)와 치수가 없는 2건을 제외한 7건은 초록 겹감과 목홍(木紅)의 안감을 사용했다.”¹⁵⁾ 이를 보면 17세기 이후의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원삼은 겹과 안이 있는 겹옷이었다.

조선중기 예서인 “『상례언해』에 『비요』에 원삼 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세속에서 사용되는 원삼의 도상<그림 5>¹⁶⁾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푸른 겹과 검은 사 2폭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몸과 같게 앞이 3~4치 짧고 깃은 심의의 깃처럼 한다는 등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¹⁷⁾



<그림 5> 상례언해의 원삼

『사례편람』 「상례」 습의(襲衣)條의 여상(女喪)에는 원삼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비요에 말하는 원삼이란 가례의 대수(大袖)이고, 세속의 원삼은 깃이 맞닿고 뒤가 길고 앞이 짧고, 소매 끝에 빛깔있는 비단으로 색동을 달아 연향수(燕香袖: 색동소매)라 하는 것이니, 야릇하고 이상하여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연향수를 없애고 앞뒤의 길이를 똑같이 하고 치마와 가지런하게 하면 이것은 소매 있는 배자이니, 만드는 법은 위의 관례 제진복 조항에 있다.”¹⁸⁾고 하여, 『상례비요』에 말하는 원삼과 『사례편람』이 편찬된 시기의 일반인들이 착용하는 원삼과는 명칭은 같았지만, 옷의 형태가 다를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문헌에서 나타나는 원삼의 명칭은 같지만, 시대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눌재집』에서 양성지(1415~1482)가 말한 원삼은 흉배를 단 옷으로 그 당시로는 괴이한 모습 이었고, 연산군 재위(1495~1505) 때의 원삼이라 불리어진 여자의 표의(表衣)는 남자의 단령과 매우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례비요』¹⁹⁾가 간행(1621년)된 시기의 원삼과 『사례편람』의 저자 이재(李穡: 1680~1746)가 생존했던 시기의 원삼은 모양이 달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인 의원군(義原君) 배위 안동 권씨(1664~1722)함장 묘 출토 복식에서도 확인되듯, 18세기 초·중반의 원삼은 오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삼과 같다.

이상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헌과 초상화에 나타난 여성 단령을 정리하면, 중국 명나라 홍무(洪武 1368~1398)와 영락(永樂 1403~1424) 년간에 제정된 궁중과 명부(命婦)·사서처(上庶妻) 복식에는 대삼과 단삼·단령삼·원삼·원령삼이 나타난다. 대삼은 하피와 배자가 부속물이며, 단삼은 부속품에 관한 별 다른 언급이 없다. 황후의 초상화에서도 배자와 하피 등을 함께 착용한 모습이 보이며, 일품 명부와 칠품 유인의 초상화에는 단령에 흉배를 부착한 것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나라에서 사여 받은 왕비와 왕세자빈의 복식에 대삼과 원령 그리고 단삼이 함께 등장하는데, 대삼은

하피와 배자등의 부속물이 있으나, 원령과 단삼은 부속물이 없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 왕실에서도 중국의 황후나 명부의 대삼과 단삼을 그대로 입었을 것으로 본다. 일반인의 복식에는 조선초기에도 단삼의 기록은 없다. 대신 원삼의 기록이 있어, 궁중의 용어는 단삼과 원령이지만, 명부와 일반인은 명나라의 일반인의 복식 명칭인 원삼이나 원령삼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III. 조선시대 중기의 남성 단령의 형태

출토 복식 가운데 여성 단령이 출토된 시기는 조선시대 초·중기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대인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 가운데 남자의 단



<그림 6> 정탁(1526~1605)
초상화



<그림 7> 제주고씨 단령

령이 출토된 경우는 9건²⁰⁾이다. 공통점은 모두 홑옷이며, 단령의 소재는 주로 면포와 단(緞)류가 사용되었다. 무 모양은 대체로 이 시기의 남성의 포류(袍類)인 답호·직령의 무와 형태가 같았다. 무의 형태는 이은주가 단령 무를 분류한 “제 3 유형의 무(대형 박주름형)와 제4 유형의 무(뒤젓힘 대주름형)”²¹⁾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단령 무의 표현으로는 정탁(1526~1605)<그림 6>²²⁾·이원익(1547~1634)과 정충신(1576~1636) 등의 초상화에서 관찰되듯이 뽀족한 삼각형의 무가 옆에서 보인다. 소매 형태는 이 당시의 일반적인 포류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시기의 소매형태는 곡선형이나 초상화에는 정확한 소매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7>²³⁾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소장 제주 고씨(임진왜란 전후기)의 단령이다.

IV. 출토복식에 나타난 여성 단령 착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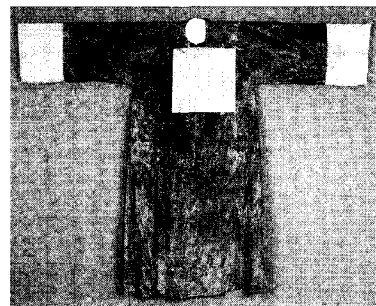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 복식 가운데, 여성 단령은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장기 정씨의 단령 1건이다. 그러나, 미발표된 것과 남성 단령으로 분류된 것을 합하면 7~8건이 된다. 미발표 여성 단령은 경기도 박물관 소장 경기도 양평 출토(2000년), 경기도 남양주 출토(2001년)의 2건이 있고, 남성 단령으로 분류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명 단령(1970년대 출토)이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착용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파손된 단령의 일부가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 전북 익산에서 여성의 단령 착용이 확인되었다²⁴⁾고 한다. 또한 최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수습한 경기도 파주의 파평 윤씨(1566년)의 경우에도 백한 흉배를 착용한 수의를 입었다²⁵⁾는 기사를 보아, 흉배를 부착한 단령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광경(鄭廣敬)의 배위 여흥 민씨(1586~1656)의 이장(移葬) 사진²⁶⁾을 보면 흉배 달린 단령을 입고 있다.

그 외 단령이 아닌 출토 원삼으로, 미발표된 경

기도 박물관 소장 경기도 포천 출토(2001년) 원삼과 2002년 10월 발표된 경기도 박물관 소장 의원군(義原君) 배위 안동 권씨(1664~1722)의 원삼이 있다.

1. 장기 정씨(1565~1614) 단령, <그림 8>²⁷⁾

“장기 정씨는 기자헌(奇自獻 : 1562~1624, 광해군대의 영의정)의 부실로서, 경북 포항시 내단리 야산에서 무덤을 이장하던 중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지식과 복식류, 직물류, 기타 염습구 등을 포함하여 61종 70여 점이다. 이 가운데 양 끝에 1.5cm 나비의 금선단(金線段) 장식이 있는 대대(大帶)와 함께 단령이 출토되었다. 단령은 공작흉배가 부착되어 있었고, 앞 뒤 길이 차이 3cm로 앞길이 다소 길다. 길이 157cm, 품 36cm, 화장(한삼 포함) 105cm, 진동·수구는 38.5cm이다. 특징은 소매 끝에 덧단을 대어 길으로 15cm 정도 넓게 접어 걸었다. 소매 부분의 배래 시접은 통솔처리 하였으며, 고름은 없는 상태이다. 무는 옆 트임 안으로 접혀 들어간 다중 안주름형이다. 일반적인 옷보다 무려 30cm 긴 길이와 다른 복식류와 비교되는 거친 바느질에서도 평상시 사용되었던 옷이 아님을 알 수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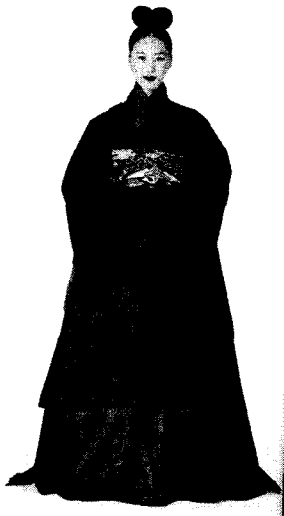


<그림 8> 장기 정씨 단령

2. 연안 김씨(연대 미상) 단령

경기도 박물관 소장 연안 김씨의 단령(미공개)은 2000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출토되었다. 함께 출

토된 복식류의 형태와 축보를 참조하면 물넌은 임진란(1592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변색되어 정확한 색은 알 수 없으나, 초록빛이 아직 남아 있는 연화문단의 홑 단령에 직금(織金) 공작홍배가 달려 있으며, 양끝에 금선단으로 장식한 대대가 함께 출토되었다. 습의로 사용된 것 같으며, 앞 뒤 길이가 차이가 14cm로 앞이 뒤보다 짧다. 뒤 길이는 154cm이며, 품은 90cm로 매우 넓으며, 진동·수구는 44.5cm의 통수이며, 화장은 73cm, 깃 나비 2.5cm이다. 장기 정씨의 단령처럼 소매를 22cm 접어 안으로 넣어 덧단을 댄 것처럼 처리하였다. 소매의 배래부분 시접은 통솔이며, 고름 나비는 7.5cm로 자주색이며, 폐넌 흔적이 있다. 무의 처리는 장기 정씨의 단령과는 다르게 겹에서 3겹 맞주름을 앞·뒤쪽으로 넘겼다. 무는 나비 8cm로 진동 아래에서 약 8cm 가량 꿰매었고, 그 아래부터 트임이 있다. 무의 위 부분에 자주색 실로 상침 한 것이 남아 있다. 깃의 파임은 18cm이고,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그림 9>²⁹⁾는 실물 크기로 제작하여 착용한 모습으로, 키 165cm 전후의 사람이 입으면 뒷자락이 끌리며, 앞 뒤 길의 차이는 옆선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아름답다. 무와 도련에는 길과 다른 옷감으로 만든 덧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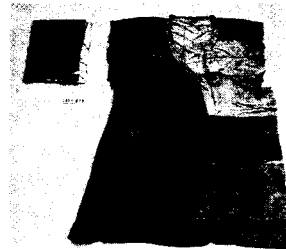
<그림 9> 연안 김씨 단령(재현품)

3. 청주 한씨(1600년 전후) 추정 단령

<그림 10>³⁰⁾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소장품으로, 1979년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출토된 이언웅(李彦雄)과 며느리 청주 한씨(문정왕후의 2녀인 의혜공주의 손녀)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가운데 파손된 단령의 일부는 여성 단령으로 추정된다. “함께 출토된 의복은 1980년 ‘광주 이씨 의복 일괄 유물’로 중요민속자료 제 114호로 지정되었으나, 단령은 중요민속자료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단령은 파손이 심하여 뒷길과 안길 그리고, 겹길의 일부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일부 남아 있는 소매 형태로 진동 넓이 비슷한 통수형임을 알 수 있다. 무의 주름이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 파손된 형태는 완형이 아니나 7.5cm의 폭으로 3개의 주름이 잡혀져 있으며 위쪽 주름 분을 같이 직선으로 박음질하여 길 쪽으로 넣어준 형태이다. 자색 실로 바느질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름이 모두 길 쪽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이는 동국대 박물관의 白紵袍 옆주름과 닮은 형태이다. 등솔은 바느질하여 가름솔로 정리하였고 앞섶 도련 선은 같은 옷감으로 단을 덧대어 공그리기 하였으며 섶 선은 길과 통솔로 바느질하였다. 깃 나비 3cm의 단(單) 단령이며, 갈색의 공단(貢緞)으로 만들었는데, 앞길이 136cm, 뒷길이 134cm 품 80cm, 진동 44cm이다.”³¹⁾



<그림 10> 청주 한씨(추정) 단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양평 출토 연안 김씨 단령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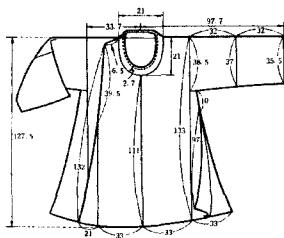
태와 치수가 매우 흡사한 것 같다. 단지 청주 한씨의 단령은 앞 뒤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다. 같이 출토된 저고리와 치마 등에 화려한 직금단(織金緞)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주 한씨의 단령은 앞섶이 훼손되어 없는 상태이지만, 흉배가 달린 단령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명 단령
(그림 11)³²⁾

1970년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서 출토되었으며, 착용자의 신분과 생몰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무명으로 된 단령 1점, 장옷 2점, 목판 깃 옆 트임 저고리 1점, 목판 깃 적삼 1점과 치마 2점이 일괄 보관되어 있다.³³⁾

고복남은 『한국전통복식사연구』에서 함께 출토된 겹저고리를 남성 저고리로 보아, 16세기의 남자 서민 무명 단령으로 분류하였다.³⁴⁾ 그러나, 함께 출토된 장옷·옆 트임 저고리·치마와 단령의 형태로 보아 여성의 단령으로 생각된다.

소매는 통수에 무는 3중 맞주름이며, 깃 파임이 19cm인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여성 단령으로, 무명으로 만든 홑 단령이다. 단령의 길이는 앞길이 134.5cm, 뒷길이 132cm, 품 84cm, 화장 97.7cm, 진동·수구 38cm, 깃 나비 2.7cm이다. 무 나비 4.5cm의 3중 맞주름으로 앞·뒤 진동 밑에서 양쪽으로 겹으로 넘기게 되어 있다. 무는 진동에서 7.5cm 이하부터 트임이 있으며, 무의 주름 고정은 위에서 언급한 연안 김씨 단령처럼 상침을 하였다. 소매 배래는 통솔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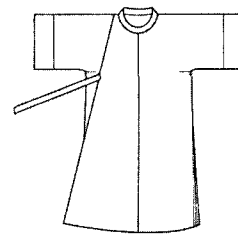


<그림 1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명 단령

5. 전주 이씨 일가 묘역 출토 단령
(그림 12)

2001년 경기도 남양주의 전주 이씨 묘역의 여성 묘에서 출토된 단령(미공개)이다. 한 쪽 끝에 직금단으로 장식된 대대와 함께 운문사(雲紋紗) 홑 단령을 습의로 입고 있었다. 그 외 장옷·옆 트임 목판 깃저고리와 치마를 비롯한 복식류 7종 22점, 염습제구 6종 6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단령은 길이 135.5cm로 앞·뒷길이 차이가 없으며, 품 62cm, 화장 63.5cm, 진동34cm·수구 33cm, 깃 나비 4.5cm이다. 나비 7.5cm의 무는 4중 맞주름으로 앞·뒤 진동 밑에서 양쪽으로 겹으로 넘겼다. 무는 진동에서 1cm 이하부터 트임이 있으며, 무의 주름 고정은 연안 김씨 단령처럼 자주색 실로 상침을 하였다. 소매 배래는 통솔로 처리하였으나, 소매 수구를 접어 이중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며, 4.5cm 제단을 접어 공그르기하였다. 이 단령은 통수이나 다른 단령에 비해 품이 넓지 않으며, 뒤 중심 69cm 아래부터 트임이 있으며, 등술에 무의 주름을 고정시키기 위한 매듭 단추가 양쪽에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고름은 자주색으로 나비 3.5cm, 길이 56cm로 양길에 달려 있다. 다른 분묘에 비해, 출토복식의 수량도 많지 않으며, 옷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다. 묘제(墓制)와 출토된 명기(明器), 그리고 출토복식으로 보아 17세기 초반으로 물년을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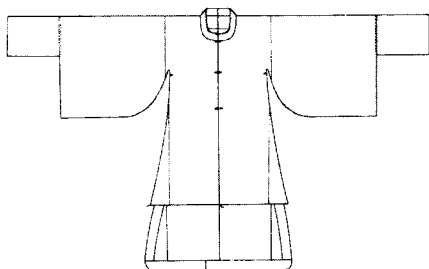
<그림 12> 전주 이씨 묘역 출토 단령

6. 동래 정씨 원삼 <그림 13>

2001년 경기도 포천군 소재 김확(金燾 : 1572~1653)의 배위 동래 정씨의 분묘에서 출토된 원삼(미공개)으로, 착용 여부는 불분명하나, 원삼에는 염습의 흔적이 군데 군데 묻어 있었다. 홑 원삼과 대대, 당코깃 저고리, 당의형태의 옆 트임이 있는 저고리, 장옷, 치마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동래 정씨의 원삼은 운문단(雲紋緞) 홑 원삼으로 도련과 옆선에는 안쪽에 덧단을 대었고, 소매 끝에 한삼이 달려 있다. 한쪽 끝에 직금단이 장식된 9cm 나비의 봉황문단 대대가 있다. 앞길이 120cm, 뒷길이 162cm로 앞이 뒤보다 42cm가 짧은 전단 후장형이며, 화장 98cm에 한삼 34cm가 달려 있으며, 소매길이 64cm, 진동 34.5cm이다. 깃은 나비 4.7cm의 원삼 깃이 달려 있으며 깃 파임은 깃 나비를 포함하여 15cm정도이다. 여밈은 자주색 매듭 단추 3개로 여몄으나 맨 아래의 매듭 단추 한 개는 소실된 상태이다. 진동 아래부터 트임이 있으며, 양옆 앞 뒤 길에 매듭단추가 달려 있어, 진동 아래 트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매는 둥근 형으로 원삼 수구처럼 전체가 트여 있지만, 그 끝에 통솔로 시접 처리한 한삼이 달려있다. 바느질은 그다지 곱지 않다. 바느질의 상태와 길이·형태 등으로 보아 수의용으로 제작한 원삼이 아니었을 까 짐작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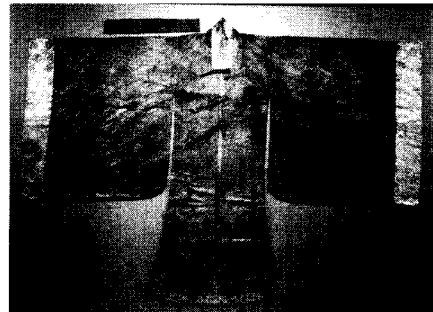
이 원삼의 깃 형태는 단령이 아닌, 원삼 깃으로 동래 정씨 몰년 즈음에는 여성 표의가 단령에서 원삼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그림 13> 동래 정씨 원삼

7. 안동 권씨 원삼 <그림 14>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출토 의원군(義原君) 배위 안동 권씨(1664~1722)의 원삼이다. 습의(襲衣)로 사용되었다. 앞길이 128cm, 뒷길이 141cm로 앞 뒤 길이는 13cm 차이가 있다. 여밈은 옷고름 3개로 여몄으며, 수구 끝에 색동은 달려져 있지 않으며, 16cm 나비의 한삼만 달려 있다. 겹감과 같은 직금단의 원삼 대대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대대 고리는 없다. 겹깃은 원삼 깃, 안깃은 사각형 맞깃이다. 겹과 안을 각각 바느질하여, 수구와 배래·도련 그리고 진동 등에서 시침질하여 고정시켰다. 이 원삼은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시대가 제일 올라가는 것이다.”³⁵⁾



<그림 14> 안동 권씨 원삼

IV. 결 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결과 조선시대 중기(임진왜란 전후)에는 남성의 단령과 다른 형태의 단령이 여성의 예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단령의 형태를 남성 단령과 비교하면 겹깃과 겹섶·안섶의 모습은 같지만, 소매모양·무 등은 구별된다.

여성이 착용했던 유물 단령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단령에 비해 깃 나비는 2.5cm 내외로 좁은 편이며, 소매 모양은 통수이며, 배래의 바느질은 통솔이다. 품이 넓은 옷은 소매 길이의 중간

정도를 접어 넣어 이중 소매를 만든 것도 있었다.

둘째, 무는 직선형 여러 겹의 맞주름으로, 장기 정씨 단령만 제외하고 모두 겹에서 앞뒤 길 쪽으로 고정하였다.

셋째, 옷고름은 대부분 7.5cm 내외로 넓고 짙은 색(자주색) 고름을 사용했으나, 때낸 흔적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 호평에서 출토된 단령은 3.5cm 나비의 좁고 긴 고름이 완전한 형태로 달려 있다.

넷째, 여성 단령은 대대와 함께 출토되며, 대대의 끝 부분에 직급단 장식이 있는 것이 많았다. 단령에 대대를 고정하는 대대 고리는 없었다. 단령과 함께 장옷·목판 깃 저고리 그리고 치마 등이 출토되었다.

다섯째, 옷감은 대부분 사(紗)·단(緞) 종류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령의 경우에는 무명이었다. 이 유물의 경우에는 생물년과 착용 인물의 신분이 불확실한 분묘에서 출토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여섯째, 여성 단령 가운데 직급 흉배가 달린 것은 2~3점으로, 흉배 부착 유무와 단령 옷감 종류의 다양함에 비춰보아 신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여성 예복으로 단령이 사용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바느질은 장기 정씨 단령과 동래 정씨 원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교하다고 한다.

여성의 단령 착용이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에 집중되는 점과 그 이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임진왜란이후 복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과제이다. 통수의 여러 겹 맞주름이 있는 단령에서 원삼 깃에 넓은 두리 소매 형태의 홀 원삼으로 변화하는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로 생각된다. 이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보충되겠지만, 현재까지는 16세기 말~17세기 초반의 여성 단령이 원삼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워본다.

여성의 단령 명칭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궁중을 제외한 일반 여성의 단령은 원삼(圓衫)이라고 불리웠을 것 같다. 앞으로, 중국 여성 단령과 형태 비교 및 여성 단령의 정확한 명칭과 원삼과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 1) 이은주(2001),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p.34 재인용. 泰州市博物館(1986), 江蘇泰州市明代徐蕃夫婦墓清理簡報, 文物, (9), pp.5-12.
- 2) 周錫保(2001), 中國古代服飾史(重刊),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418.
- 3) 明太宗孝文皇后像(2001), 위의 책, p.419 재인용.
- 4) 黃能馥, 陳娟娟(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p.356 재인용. 李邦鏞 夫人 楊氏, 李文忠元配 曹國夫人 華氏 像 등이 있다.
- 5) 明 那玠夫婦像, 위의 책, p.349.
- 6) 위의 책, p.357.
- 7) 周錫保, 앞의 책, p.422, 孺人是 정7품 관리의 어머니와 처에 내리는 봉호(封號) 혹은 증호(贈號)이다.
- 8) 위의 책, p.422.
- 9) 대명회전, 60권, pp.37~62, 61권, pp.30~38.
- 10)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1997),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 태종 3년, 문종 3년·8년, 단종 3년, 세조 2년, 예종 1년의 기록이 있다.
- 11) 김영숙, 손경자(1975),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Ⅲ, 서울: 교문사, p.712. 남만성 역, 늘재집(대양서적, 1975) 재인용. 近日無貴賤男女任着黃衣以至兩班婦女呼稱圓衫製以着之加之以着胸背白晝大都之中恬不知怪(第四卷, 風俗學校十二事)
- 12)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4년 6월 경진(庚辰), 第10條 圓衫單長衣勿舉行.
- 13)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11년 6월, 丙寅自是紗羅綾緞其價湧貴朝士家貧不能買者則以女服造團領朝賀朝參時太半皆是女圓衫.
- 14) 고복남(1991),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일조각, p.245.
- 15)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서울: 수학사, p.300.
- 16) 이은주 외(2001), 우리나라 壽衣文化, 서울: 신유출판사, p.78 재인용. 喪禮諺解 卷之二 四十五.
- 17) 위의 책, p.78.
- 18) 문옥표 외 역(1999), 朝鮮時代 冠婚喪祭(Ⅱ), 喪禮篇(Ⅰ),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3.
- 19) 조선 중기의 학자인 신의경(申義慶)이 찬술한 상례(喪禮) 지침서. 1620년 김장생이 증보하고, 서문을 붙였고, 1621년 신흠(申欽)의 발문이 있다. 그 뒤 김집(金集)이 이를 다시 교정하여 1648년(인조 26)에 2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 20) 박진영(2000), 조선시대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서울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 21) 이은주(1998),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2-86.
 - 22) 정병모(2001), *회화 I*, 서울: 예경, pp.102-103.
 - 23)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1999), *한국복식*(제 15호), 서울: 단국대학교, p.91.
 - 24) 이은주(2000), *앞의 책*, p.34.
 - 25) *조선일보*, 2002년 9월 8일·10일 신문 기사 참조.
 - 26) 경기도(1992), *東來鄭氏 興谷公墓 出土 遺衣 保存處理報告書*, 경기향토사료집 5집, 수원: 경기도, p.12.
 - 27) 이은주(2000), *앞의 책*, pp.26-38.
 - 28) *위의 책*, pp.26-38.
 - 29) 한복사랑운동협의회(1999), *여성 예복으로 만나는 아름다움*, 서울: 한복사랑협의회, p.24.
 - 30) 박성실(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6.
 - 31) *위의 책*, pp.260-261.
 - 32) 고복남, *앞의 책*, p.233.
 - 33) 2002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조사함. 유물 목록 표에는 무명 천막으로 분류되어 있다.
 - 34) 고복남, *앞의 책*, pp.232-233.
 - 35) 송미경(2002), 18세기 여성 연습의 일례에 관한 고찰, *복식*, 52(6), pp.119-120.